

外國人을 對象으로 한 韓國語 教育의 諸問題

윤여탁

I

우선 나 자신이 속한 학과의 위상을 이야기하면서, 본 논의의 출발점을 삼고자 한다. 내가 소속한 학과의 정식 명칭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이다. 이 명칭에는 국어 교육이 학문적 탐구보다는 기능적인 직업 교육의 성격이 강하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그래서 우리 국어교육과는 이런 인식을 바꾸고 국어교육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10여 년 동안 노력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는 국어교육학이 자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체를 탐구하는 학문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한 상태이다.

이런 추세와 더불어 한국의 국제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내가 속한 국어교육과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이 분야의 학문적 탐구와 전문가 양성이라는 숙제를 안게 된 것이다. 최근 국어교육과의 학부와 대학원에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세계 각국의 유학생들이 매년 20여 명씩 입학하고 있기 때문에 자국어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로서의 국어 교육과 더불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의 이론과 실체를 본격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¹⁾

이에 따라 자국어 교육 이론과 방법을 교육하는 국어교육학과는 다른,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이론과 방법을 교육할 한국어교육학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몇 년 동안 대학원에 한국어 교육 전공이나 학과를 개설할 준비 작업을 하여, 2002학년도 1학기부터 ‘한국어 교육 전공’ 석·박사 과정이 개설되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하여 일부 대학의 교육대학원에 개설되어 있는 한국어 교육 전공과는 달리,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본격적인 한국어 교육 이론과 방법을 연구 또는 교수·학습할 수 있을 것이며, 학문적 차원에서 한국어교육학의 위상을 정립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은 이미 5년 전부터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 과정’이라는 1년 과정의 공개 강좌를 개설하여 지금까지 4기에 걸쳐 170여 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현재에도 50여 명이 이 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또한 국어교육과의 연구 조직인 ‘국어교육연구소’에서는 매년 한국어 교육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1999년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방법’, 2000년에는 ‘한국어 교재의 현황과 개발 방향’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졌으며, 올해에는 ‘한국어 교사론’이라는 문제에 대한 학술회의가 열린다.

1) 현재 약 50개국 300여 연구 기관이나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66개 이상의 대학이나 기관에서 한국어가 가르쳐지고 있다. 이밖에 호주와 미국의 경우에는 임시 제도에서 한국어를 외국어로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현재 50여 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난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북경의 대외경제무역대학에서 70여 명의 재 중국 한국어 학과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학회를 개최한 바 있다.

박갑수, 「한국어 교육과정 구안에 대한 논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연구』, 서울대 사범대학, 2000, 3면.

이처럼 한국어 교육은 국내외적으로 날로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연구와 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반영하여 연구 기관이나 대학, 관련 학회는 한국어 교육 관계 학술회의를 앞다투어 개최하고 있다. 즉 한국어 교육의 양적인 팽창과 필요성의 증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가 다양한 방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본 논의는 이처럼 전개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의 대체적인 추세를 소개하면서, 앞으로 효과적인 한국어 교육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한국어 교육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제기되는 문제 중, 가장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것은 한국어 교재의 문제이다. 한 마디로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는 적당한 교재가 없다는 하소연이 세계 각국에서 들려오고 있다. 여기서는 우선 한국어 교재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그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기로 한다.

그 동안 많은 한국어 교육 기관은 한국의 교육 기관이나 대학, 일부 출판사에서 발행한 한국어 교재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 경우 주로 영어권 언어 사용자를 염두에 둔 교재인 까닭에 각국의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일부 교육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한 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역시 옛날 식의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물론 최근에 개발된 한국어 교재는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이 같은 한국어 교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한국어 교재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국가, 수준, 목적에 맞는 다양

한 한국어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 먼저 한국어 교재는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는 해당 국가의 현실을 반영하는 교재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은 외국어 교육에서 모국어의 특성(문법, 음운 등)이나 간접 현상²⁾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이미 한물 간 방법론이라는 평가가 내려지기도 한 대조 연구에 기초하여, 한국어 학습 방법 및 교재의 국가별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외에도 한국어를 학습하는 단계(초급, 중급, 고급, 전문가 등)에 맞추어 이에 적합한 다양한 교재가 개발되어야 하며, 한국어를 배울 필요성(관광, 무역 업무, 학문 등)에 따라 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교재여야 한다. 즉 초급 단계에서는 생활 한국어 중심으로 시작하여, 단계가 높아질수록 문법이나 문화를 반영하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하와이대학교(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나 북경대학교(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지원)에서 개발하고 있는 교재는 국가별, 수준별을 고려한 한국어 교과서이며, 최근 일부 출판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Business Korean'이나 한자 교육 관련 교재는 한국어 학습 목적을 고려한 교재의 예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한국어 교재는 기존의 문형이나 문법 중심의 교재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최근 외국어 교육에서는 활동이나 상황 중심의 언어 활동이 중요한 방법론으로 제기되었으며, 이에 대한 반성으로 문화나 문법 교육 역시 중요하다는 주장³⁾도 제기되었다. 물론 이 같은 교수-학습

2) 전자(모국어의 특성)의 예로는 어순, 경어법의 유무, 조사나 어미의 유무, 모음이나 자음 등이며, 후자(간접 현상)의 예로는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 볼 수 있는 어휘의 용례나 의미 차이 등을 들 수 있다.

3) 그 대표적인 예가 미국에서 '외국어 학습의 국가 표준(National Standards for Foreign Learning)'에서 제기한 5C(communication, cultures, connections, comparisons, communities)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의 책을 참고할 것.

Lafayette R. C.(ed), *National Standards: A Catalyst for Reform*, National Textbook Co., 1996.

Phillips J. K.(ed), *Foreign Language Standards: Linking Research, Theories, and*

방법은 학습의 단계나 목적에 따라 다른 방법론이 적합하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즉 의사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어 교육에서는 상황이나 활동 중심의 방법이 선호되고 있으며, 한국학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한국어 문법이나 한국 문화 역시 중요한 교육 내용이라는 것이다. 특히 과거에 많이 썼던 문형 중심의 한국어 교재보다는, 최근 문형을 언어 상황 맥락 속에서 구현하는 활동 중심의 교재를 개발하거나, 문화 요소를 활용하여 언어 활동을 유도하는 교재를 개발하는 경향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셋째로 언어 사용 능력의 본질을 반영하는 한국어 교재가 개발되어야 한다. 즉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사용 능력에서 의사 소통 능력과 문화 능력이 똑같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 두 능력을 함께 기르기 위한 한국어 교수-학습은 초기에서부터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동안 의사 소통 능력 함양을 위한 한국어 교재는 생활 한국어(survival korean) 교육으로, 주로 실용적인 언어 활동이 이루어지는 상황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방법은 한국학 관련 학습이나 연구를 위해서 한국어를 배우는 데에는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한국어 교재는 의사 소통 능력뿐만 아니라, 문화 능력⁴⁾도 같이 함양할 수 있도록 구안되어야 하며, 한국어 교육 수준 즉 위계화⁵⁾ 문제를 고려하는 비율을 정해야 한다.

Practices, National Textbook Co., 1999.

U. S.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he National Endowment for Humanities, *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Preparing for the 21st Century*, Allen Press,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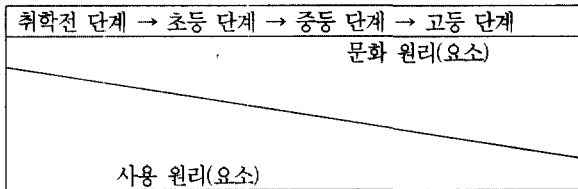
- 4) 윤여탁,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의 위상과 역할」, 『국어교육연구』 7,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000.
- 5) 김광해, 『국어지식교육론』, 서울대 출판부, 1997, 7~8면.

다음의 그림표는 물론 자국어 교육에서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도 유효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미국의 ‘외국어 학습의 국가 표준’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의사 소통 능력 함양이 외국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다⁶⁾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의사 소통 능력 역시 생활 한국어 사용 능력만이 아니라 문화 능력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 두 능력을 고려한 교재, 그리고 목적이나 수준, 국가별로 다양한 교재가 개발될 필요가 있다.

III

세계 각국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면서 대두된 또 하나의 문제점은 한국어 교사의 문제이다. 그 동안 한국어 교사는 한국어 교육 또는 한



6) U. S.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he National Endowment for Humanities, 앞의 책, 37~38면.

“The Communication Goal includes three standards based on the Framework of Communicative Modes. The first focuses on the Interpersonal Mode; the second focuses on the Interpretive Mode; the third focuses on the Presentational Mode.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with the Communication Goal is central to the achievement of all other goals, it cannot be viewed in isolation. This is clearly illustrated in the Sample Progress Indicators for each of the standards. While the focus is on the use of language and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ve competence, will need experience in the other goal areas in order to have content worth communicating. Knowledge of the linguistics system, its grammar, emerging vocabulary, phonology, pragmatic and discourse features undergirds the accuracy of communication.”

국학 교육의 전문가라기보다는 외국어 교육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해당 외국에 학습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진출하여, 부가적으로 한국어 교육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 일부가 현재 한국어 교육을 전담하거나 한 부분을 맡고 있다.⁷⁾ 단지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의사 소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초급 단계의 한국어 교육을 전담하고 있으며, 그 일부는 고급 단계를 강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같은 추세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힘은 국내외 양면에서 나오고 있는데, 국내적으로는 이제 한국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는 학자와 교사들이 배출되고 있으며, 국외적으로는 한국어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이 다양해지고 있음에서 찾을 수 있다. 즉 국내적으로는 한국의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는 한국인이나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들에 의해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제 부가적으로 한국어 교육을 맡았던 사람들의 역할이 축소되기에 이르렀다.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과 자격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에게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교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개설되기 시작하였으며, 대학이나 대학원에 한국어 교육 전공이 생기게 되었다. 한국어 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 기관이나 학교가 나선 것이다. 이들은 한국어 교사를 위한 표준 교육 과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교사 자격 인증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⁸⁾

이런 측면에서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이라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 때의 전문성이라는 개념은 한국어와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어

7) 이런 점은 해외의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대부분이 언어학이나 해당 외국어를 배우려고 유학을 간 학생들이라는 사실에서 잘 알 수 있다.

8) 민현식 외, 『“한국어 교사 자격 인증 제도 시행을 위한 기초적 연구” 사업 보고서』, 문화관광부 한국어 세계화 추진 위원회, 2000.12.

야 한다는 점과 학습자의 모국어와 한국어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수 있다. 전자와 후자는 긴밀히 연관된 것으로, 학습자의 모국어 특성을 고려하여 한국어를 효과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한 사람이 한국어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즉 부업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어를 전공한 전문가가 한국어 교육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어 교사를 양성하는 각 기관의 교육 과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기관 인증 또는 고시 인증의 형태로 교사 자격증⁹⁾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어 교사 양성 기관이나 대학원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표준 교육 과정을 마련하여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 한 예로 2002학년도 1학기부터 개설된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의 한국어교육 전공의 교육 과정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 과정'의 교육 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¹⁰⁾

-
- 9) 물론 교사 자격증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해당 국가의 교사 자격증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받은 교사 자격증을 인정하지 않는 곳이 많다. 이에 비하여 대학원의 학위는 비교적 널리 인정되는 편이다. 고시 자격증보다는 기관 자격증이나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서울대학교는 대학원에 '한국어교육 전공'을 설립하였고, 일부에서는 협동 과정으로 '한국 문화 전공' 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학부 과정에 '한국학' 연합 전공(외국의 프로그램과 유사한)을 개설할 준비를 마친 상태이다.
- 10) 참고로 2002학년도 1학기부터 개설되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교육과의 한국어교육 전공의 교육 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공통 과목)

국어교수학습론연구
국어규범론연구
고전산문교육론연구

국어지식교육론연구
고전시가교육론연구
현대시교육론연구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도자 과정>

I. 기초 이론

- 1-001 한국어 교육의 현황과 과제 1-002 한국어의 특질과 역사
- 1-003 한국어 교육의 기초 이론 1-004 한국의 이해
- 1-005 해외 한인 사회와 문화

II. 한국어 지식

- 2-001 한국어 표준어와 정서법 2-002 한국어 발음 지도법
- 2-003 한국어 어휘 지도법 2-004 한국어 문법 지도법

III. 언어 문화

- 3-001 한국 문화의 이해 3-002 한국 언어 문화의 이해
- 3-003 문학을 통한 한국어 지도법 3-004 한국어 매체 교육론

IV. 언어 기능

- 4-001 한국어 교수 학습론 4-002 한국어 말하기-듣기 지도법

현대산문교육론연구	*언어와 문학
국어문화교육론연구	*언어교육연습
*문학교육연습	*국어교육과 관련학문연구
국어교육정책론연구	국어어휘교육론연구
교육문법론연구	구비문학교육론연구
교술문학교육론연구	문학비평교육론연구
문학교육사상론연구	문학사교육론연구

(한국어교육 전공 과목)

한국어교육론연구	한국문학교육론연구
한국어음운교육론연구	한국어대조·오류분석론연구
한국어문법교육론연구	한국어이해론연구
한국어표현론연구	한국어교수법연구
한국문화와 한국어교육연구	매체와 한국어교육연구
한국어교재론연구	한국어평가론연구
한국어교육과정론연구	한국어문형교육론연구
한국언어문화특수문제연구	한국고전문학교육론연구
한국현대문학교육론연구	한국어문체교육론연구
한국어교육의 특수문제 연구	한국어교육연구방법론

- | | |
|------------------|------------------|
| 4-003 한국어 읽기 지도법 | 4-004 한국어 쓰기 지도법 |
| 4-005 한국어 평가론 | 4-006 한국어 원격 교육론 |

V. 현장 실습

- | | |
|-------------|-------------|
| 5-001 해외 연수 | 5-002 수업 참관 |
| 5-003 모의 수업 | |

그런데 한국어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상의 교육 과정은 주로 한국어나 한국어에 관련된 것이지만, 결코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이와 더불어 학습자의 모국어나 모국과 관련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함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앞으로 한국어 교사는 학습자의 모국어나 모국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양성될 필요도 있다. 특히 이 같은 분야의 전문성은 초급 단계, 학습자의 모국어 간섭이 심하게 일어나는 단계를 교육할 교사에게 절대적으로 요청되는 사항이다.

다음으로는 국외적 상황을 들 수 있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국어 학습의 필요성이나 목적이 다양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미 각국의 한국어 교육 기관에서도 자국민 한국어 교사가 어느 정도 양성되어, 이들에 의해 초급 단계의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학생들이나 외국인 전공자들이 담당했던 정도의 한국어 교육보다는 고급 단계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할 교사의 필요성이 증대된 것이다.

그 한 예로 이미 미국의 연구 기관이나 대학에서는 한국어 또는 한국 문학을 전공한 전문가를 파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초급 단계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에서 한국어를 공부한 자국민 교사들이 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고급 단계 또는 한국 문학이나 문화를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을 반영하여, 최근 한국학술진흥재단은 한국어나 한국 문학을 전공한 전문가를 파견하고 있으며, 초급 단계를 가르치는 교사 파견을 점차로 줄여가고 있다.

이런 추세는 앞으로 한국에서는 물론 외국에서 한국어 교육이 전문화 되면서, 점점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에서 한국어 교육을 받은 외국인 교사가 날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의 대학이나 대학원 과정에서 한국어 교육을 전공한 외국인 교사가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학습 경험을 반영한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고 있으며, 보편적인 교수-학습 이론은 물론 경험으로서의 한국어 교육학을 정립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한국어 교육에서 원어민(native speaker) 교사의 역할을 달리 정립할 필요가 제기되었다.

달리 말하면, 한국어 교육에서 교사의 전문성이 세분화되면서, 그 역할을 분담할 필요가 제기된 것이다. 즉 의사 소통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는 초급 단계의 한국어 교육은 해당 국가의 교사가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고, 문화 능력을 기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고급 단계의 한국어 교육은 한국의 문화와 문학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한국인 또는 자국민 교사가 담당해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이 단계의 한국어 교육 역시 해당 국가 출신 교사가 담당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에 의해 교육 과정 및 교재가 마련되어야 한다.

IV

그 동안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은 전통적인 외국어 교수-학습 방법을 받아들여서 적용하는 수준이었다. 초기에 제시된 방법은 문법-번역법, 직접법(直接法), A-L법(Audio-lingual approach) 등이었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교수법(non-conventional)'으로 전신 반응법(Total Physical Response), 침묵법(Silent Way), 공동 사회 언어 학습법(Community Language Learning), 암시법(Suggestopedia), 자연법(自然法, The Natural Approach), 의사 소통

법(Communicative Approach) 등이 제안되었다.¹¹⁾

그러나 최근 한국어 교육 전공자들이 등장하면서, 그 적용 단계를 넘어 독자적인 방법론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¹²⁾ 이 중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가 문화 교육 방법이다. 즉 한국의 문화를 한국어 교육에 활용하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지역 사정'이라는 전통적인 개념 수준에서 문화를 가르치던 단계를 넘어 문화 학습을 한국어 교육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한국의 문화나 역사 등을 소개하는 소극적인 방법보다는 문화 요소를 교수-학습 내용으로 구성하는 방식¹³⁾을 도입할 수 있다.

이의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속담이나 문학 작품을 활용하는 한국어 교육¹⁴⁾이나 비언어 문화, 즉 제스처(gesture)나 언어 예절과 같은 의사 소통 맥락을 반영하여 한국어 교수-학습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특히 문학 작품을 활용한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은 문학 작품이 한국어 교육의 좋은 예일 뿐만 아니라, 문화 요소를 반영하고 있는 살아 있는 언어 자료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 교수-학습 방법의 탐구는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 이론 정립의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머지 않은 장래에 다양한 양상과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매체, 특히 대중 매체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에 대한 탐구를 들 수 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 동안 다양한 매체를 교수-학습에 활용하는 방법이 논의되었다.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참

11) 박갑수, 「한국어 교육의 과제와 전망」, 『국어교육연구』 6,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1999, 11~12면.

12) 김종섭, 「한국어 교육의 새로운 방법」,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앞의 책.

13) 국제한국어학회, 『21세기 한국어 교육의 발전 방향과 과제』, 제10차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0.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이중언어학회, 『한국문화와 한국어교육 정보구축을 위한 21세기의 과제』, 제1차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0.

14) 윤여탁,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앞의 책.

고로 국어 교육에서 매체 교육에 대한 관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즉 초창기 국어 교육에서 매체는 시청각 교육 차원의 교구(敎具)로 제안되거나 방송이나 영상 매체를 비롯한 대중 매체가 전달하는 언어를 교육 내용(text)으로 활용하는 방법에서, 최근에는 이 같은 대중 매체가 포함하고 있는 다양한 메시지를 교육 내용으로 하는 매체에 대한 교육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국어 교육은 우선적으로 매체를 활용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국어 교육이 문자나 말로 표현된 제재만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로 표현된 제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영화나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고 한국어 능력을 함양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이 드라마의 내용에 대한 말하기, 글쓰기와 같은 기능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은 학습자들에게 친근한 대중 매체의 하나인 영화나 드라마를 활용하는 교수-학습 방법으로, 다른 외국어 교육에서도 활발하게 제안되고 있다.

아울러 한국어 교육의 목표이자 활동이 말하기/듣기, 읽기/쓰기 또는 이해와 표현으로 교직(交織)되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효과적인 말하기나 글쓰기와 같은 언어 활동에서 글이나 책과 같은 전통적인 인쇄 매체를 넘어 대중 가요나 노래 등의 대중 매체를 활용하는 교수-학습 방법을 구안할 수 있다.¹⁵⁾ 이를 통하여 한국어 교재의 다양화와 교수-학습 방법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한국어 의사 소통 능력의 상위 단계인 문화 교육의 목표도 실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15) 이 방법은 현대 사회의 대중들이 향유하는 매체가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외국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한국의 노래는 글보다 훨씬 쉽게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교수-학습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할 것.

곽셀,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앞의 책.

끝으로 한국어 교육에서 신매체(New Media)로 불리는 컴퓨터 또는 인터넷을 활용하는 원격 교육 방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¹⁶⁾ 특히 정규 교육 기관이나 교사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한국어 교육 수요자가 증가하면서, 웹 기반(WBI)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의 여러 기관, 대학, 기업, 개인이 한국어 원격 교육에 뛰어들고 있다. 그 한 예로 한국의 기업과 손잡고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에서 개발한 Korean Tutor(<http://www.koreantutor.com/>)라는 유료(有料) 사이트를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한국의 교육인적자원부 한국어 교육 센터, 이화여자대학교, 서강대학교, 경희대학교, 호주의 모나쉬대학교 등에서 이 같은 한국어 원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유료 사이트를 제외하고는, 이 프로그램들은 사회 봉사 차원이나 학교를 국내외에 알리는 선전 효과를 노리는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목적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여기서는 서울대학교에서 개발한 한국어 프로그램인 Korean Tutor를 중심으로 그 목적과 필요성을 제시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¹⁷⁾

첫째,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와 교사 및 교육 기관 등이 다양한 학습 자층에 비해 제한적임으로 인해 학습자에게 충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한국어 웹 기반 수업은 우선 효과적인 데이터 베이스 구축을 통해 한국어 교수자의 간접적인 교수 경험과 자료를 공유할 수 있게 해주는 물론 실생활 중심의 다

16) 조수진, 「한국어 교육을 위한 컴퓨터 보조 학습 교재 개발 연구」, 서울대 대학원, 1998.

최성욱, 「웹기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 연구」, 서울대 대학원, 2000.

17) 윤여탁, 「웹기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Korean Tutor의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보고서, 2000, 3~4면.

양한 자료를 멀티미디어를 통해 구현함으로써 보다 나은 언어 학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 즉 전문적 연구나 현장에서의 경험의 축적을 바탕으로 제작된 교수-학습 매체를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언제 어디서든 한국어 학습을 가능하게 해 준다.

둘째, 기존 한국어 학습은 각기 다른 목적을 갖는 다양한 학습자의 교육적 욕구에 부응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한국어 교육 기관의 학습자들은 관광, 진학, 취업 등 여러 목적을 가지고 한국어 학습을 하게 된다. 웹 기반 한국어 교육의 경우, 학습 목적과 연령, 사전 지식, 국적, 모국어, 제 1 외국어, 제 2 외국어 등의 변인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의 방법과 내용에 맞추어 다양한 목적과 학습자를 대상으로 제작 및 공급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한국어 학습자들은 한국어 웹 기반 수업에서 학습 내용과 학습 시간, 학습 분량 그리고 피드백(feedback) 등을 필요와 한국어 능력 수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셋째, 기존 한국어 수업은 교사 중심의 주입식 수업으로 인해 학습자의 다양한 활동과 연습을 유도하기보다는 교사 중심의 수업으로 일관되는 경향이 있다.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학습의 환경은 학습자가 원하는 만큼의 반복과 연습을 부여하기 어렵다. 그러나 웹 기반 한국어 수업에서는 학습자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지속적으로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개별적인 반복 연습을 통하여 실생활에서의 적응력도 기를 수 있다. 또한 향후 음성 인식 시스템이 상용화될 단계에 이르면 한국인 원어민과의 대화 연습도 가능해져서, 기존 한국어 교수-학습의 한계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현대 사회의 변화에 발맞추어, 한국어 교육의 교수-학습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 아울러 이런 한국어 교육 방법의 탐구와 지향은 앞

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한국어 교수-학습 방법의 이점을 살리면서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이 주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

V

이 글을 마무리하면서, 한국어 교육의 실제와 이론 연구라는 문제에 대한 단상(斷想)을 밝히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학문 연구의 성과가 곧바로 교육의 현장에 반영되지는 않는다. 학문 연구는 이론적인 탐구가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과 같은 교과 교육학의 분야에서는 이론 연구가 곧바로 방법 연구로 이어지는 이론 학문이자 실천 학문이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 연구는 항상 방법 연구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짐으로써, 교수-학습 방법으로 실현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어 교육과 연구가 항상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탐구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과거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한국어 교육의 연구와 실제 교수-학습의 현실이 시사하는 바이기도 하다. 즉 그 동안 한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대한 연구는 대학원의 일부 전공자들이 외국어 교육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해 왔으며, 교수-학습은 직접법이라는 제한적인 방법론에 의존하여 일방적인 주입식으로 이루어졌다. 그 단적인 예가 문법 중심, 문형 중심의 교재와 이를 교수-학습하는 한국어 교육 기관의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이제 이에 대한 반성이 한국어 교육 전공자들 사이에서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2~3년 전부터 한국어 교육 관련학회가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으며, 이들 학회에서는 한국어 교육 이론과 교수-학습 방법론이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다. 아직은 전공자들이 젊어서 그 영향력은 크지 않지만, 머지 않은 장래에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

측된다.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물론 학습자의 미래가 매우 희망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글을 맺는다.

참고 문헌

- 국제한국어학회, 『21세기 한국어 교육의 발전 방향과 과제』, 제10차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0.
- 김광해, 『국어지식교육론』, 서울대출판부, 1997.
- 김중섭, 「한국어 교육의 새로운 방법」, 『국어교육연구』 6,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1999.
- 민현식 외, 『“한국어 교사 자격 인증 제도 시행을 위한 기초적 연구” 사업 보고서』, 문화관광부 한국어 세계화 추진 위원회, 2000.12.
- 박갑수, 「한국어 교육의 과제와 전망」, 『국어교육연구』 6,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1999.
- 박갑수, 「한국어 교육과정 구안에 대한 논의」,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연구』, 서울대 사범대학, 2000.
- 윤여탁, 「문학을 활용한 한국어 교육 방법」, 『국어교육연구』 6,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1999.
- 윤여탁, 「한국어 교육에서 문화의 위상과 역할」, 『국어교육연구』 7,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2000.
- 윤여탁, 『웹기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Korean Tutor의 개발 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보고서, 2000.
- 조수진, 「한국어 교육을 위한 컴퓨터 보조 학습 교재 개발 연구」, 서울대 대학원, 1998.
- 최성욱, 「웹기반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원리 연구」, 서울대 대학원, 2000.
- 한국어세계화추진위원회·이중언어학회, 『한국문화와 한국어교육 정보구축을 위한 21세기의 과제』, 제1차 한국어교육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00.

- 픽셀, 「노래를 활용한 한국어 교육」, 『국어교육연구』 6, 서울대 국어교육연구소, 1999.
- J. K. Phillips(ed), *Foreign Language Standards: Linking Research, Theories, and Practices*, National Textbook Co., 1999.
- R. C. Lafayette(ed), *National Standards: A Catalyst for Reform*, National Textbook Co., 1996.
- U. S.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he National Endowment for Humanities, *Standards for Foreign Language: Preparing for the 21st Century*, Allen Press, 1996.

■ 中文提要

以外國人對象的韓國語教學

尹汝卓

韓國在國際地位上不斷提昇的趨勢下，國語教育學系更被賦予新的使命與任務。首先除應專為外國人設計不同的韓國語教學之外，同時在此領域中，追求新的教學方法以及培育專門教育人材，亦為重要的課題。為了學習韓國語，最近在國語教育學系大學部或是研究所當中，每年有20名以上來自世界各國的留學生入學。因此，除了以本國語為出發點的國語教育之外，以外國人為教學對象，而對韓國語教育的理論與實際做近一步的探討，確實有其研究的必要。

因此，與進行本國教育理論及方法的之國語教育學系不同的，專以外國人為教育對象，而進行韓國語教育理論化及方法之重要性日益增加，在各大學研究所也陸續開設主修韓國語教育的學系。於是，不同於只在部分大學研究所中開設主修韓國語教育的課程，也同時開設韓國語教育相關理論與方法的課程，由此可知，未來韓國語教育學在學術發展地位上即將具備新的地位。

在此脈絡下，在Seoul大學師範大學國語教育學系下開設「以外國人為對象進行之韓國語教育」的一般課程，到目前為止，經過四個學期，一共有170餘名同學修習此科目。現在也有50餘名同學正在修習此科目。以外，在研究國語教育之「國語教育研究所」機關中，每年也定期舉辦與韓國語教育相關之國際學術會議：去年1999年舉辦了「教授外國人的韓國語教育方法」；2000年年舉辦以「韓國語教學教材的現況與發展方向」為題之學術發展會議；今年則預定將以「韓國語教師問題之研討」為主題舉行學術會議。

由此可見，韓國語教育在國內之重要性日益增加。也因此，在韓國韓國語教育與其相關之研究與教育課程正蓬勃發展當中。由目前在各研究機關·大學·

相關學會陸續增加舉辦與韓國語教育相關之學術研討會議可看出韓國語教育目前的重要性。換句話說，為增加韓國語教育在量上的發展以及提升韓國語教育的重要性，需要更多樣化，更多方面的進行相關研究。以上為本論的研究動機。透過目前韓國語教育的初步介紹，藉以更有效解決在韓國語教育上可能面臨之種種問題